

# 2025 미얀마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 Contents

<b>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b>	<b>1</b>
1. 개요	1
가. 시장 전망	1
나. 주요 경제지표	1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2
가. 서방의 경제 제재 지속	2
나. 2024년 들어 격화된 무력 분쟁과 경제 위축 상태 지속	3
다. 2025년 말 총선 실시 선언 및 인구조사 실시 계획 추진	3
<b>II. 비즈니스 환경 분석</b>	<b>4</b>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4
가. 정치 환경	4
나. 경제 환경	6
다. 산업 환경	10
라. 정책·규제 환경	12
2. 시장 분석	18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8
나. 교역	19
다. 투자	21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2
가. 교역	22
나. 투자 진출	25
다. 협력 유망 분야	26
<b>III. 진출전략</b>	<b>27</b>
1. PEST 분석	27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28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9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34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38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40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1

## 1. 개요

### 가. 시장 전망

□ 2025년 시장 여건은 더딘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

- 수년간의 낮은 경제성장세로 인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025년 경제성장률은 2.0% 수준의 더딘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체될 것으로 보임
- 공장 가동과 해외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계 구매력이 위축되었고, 전력 공급의 불안정, 내전에 따른 물류 혼란, 미국의 금융 제재 등으로 인해 제도적 불확실성도 지속

###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구	백만 명	52.832	53.019	53.019	54.690	55.768	56.249	56.706	-
명목GDP	십억 달러	66.7	68.8	81.3	65.1	56.8	63.9	68.0	73.5
1인당 명목GDP	달러	1,271	1,302	1,527	1,216.8	1,053.3	1,180.5	1,247.7	1,342.2
실질성장률	%	6.4	6.7	3.1	-17.9	1.9	2.6	1.5	2.0
실업률	%	4	4	4	4	4	-	-	-
소비자물가상승률	%	5.9	8.6	5.7	3.6	16.1	14.1	15	7.8
재정수지(GDP대비)	%	-4.707	-2.827	-3.384	-0.184	-1.376	-1.003	-1.189	-
총수출	백만 달러	8,861.0	17,060.4	17,681.1	15,363.3	8,308.4	16,621.3	-	-
(對韓 수출)	"	536.5	595.2	608.9	445.8	629.1	542.1	326.9	-
총수입	"	9,866.5	18,086.6	19,050.9	14,686.1	7,964.9	17,355.5	-	-
(對韓 수입)	"	534.1	631.6	465.8	367.9	384.3	697.8	218.5	-
무역수지	백만 달러	-1,005.5	-1,026.2	-1,369.8	677.2	343.4	732.5	-	-
경상수지	"	-3,592	-2,959	-2,959	-3,666	-2,843	-3,963	-4,271	-4,667
환율(연평균)	현지국 /US\$	1,430/1	1,522/1	1,407/1	1,850/1	2,100/1	2,100/1	2,100/1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	-	-	-	-	-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7	41	48	37	6.4	16.4	6.6	-

주: 對韓 수출입액은 2024년 8월 기준임

자료: IMF, 한국무역협회, 미안마 통계청, 상무부, 노동이민주인부, 중앙은행, 투자위원회(MIC)

##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서방의 경제 제재와 무력 분쟁에 따른 정세 불안은 계속되고는 있지만 2025년 말 총선에 대한 준비가 거론되는 등 정세 변화의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어 단정적으로 전망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관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 가. 서방의 경제 제재 지속

-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서방 국가들의 군 관련 인사, 기업 및 정부 조직 대상의 경제 제재 지속

#### 〈서방 국가들의 세부 제재 내역 요약〉

국가명	세부 제재 내역
미국	재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총사령관 등 군부 관련 인물 95명, 기업/단체 34개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거래 제한 조치 (2021년)</li> <li>• 현지 정부의 대외 결제 창구인 대외교역은행(Myanmar Foreign Trade Bank), 투자상업은행(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등 국책은행 2개소에 대해 제재 추가 (2023년)</li> <li>* 대외교역은행, 투자상업은행은 공식 영문 표기명에 'Myanmar' 대신 'Myanma' 사용</li> </ul>
	상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관리규정(EAR)에서 미얀마의 국가 그룹을 Group B에서 Group D1으로 하향 조정하고, * 對美 수출 시 일부 품목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li> <li>• 쿠데타 관련 정부 기관, 군 소유 기업을 '우려 거래자'로 등재 (2021년)</li> <li>* 국방부, 내무부, 미얀마경제지주공사(MEHL), 미얀마경제공사(MEC) 등 4개 기관</li> </ul>
	무역대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체결된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적용을 민주 정부가 복권될 때까지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 (2021년)</li> </ul>
	국제개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적 지원 외 총 4,200만 달러 규모의 對정부 원조를 철회</li> </ul>
유럽연합(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 개발 원조 전면 중지 (2021년)</li> <li>• 자산 동결 및 금융 거래 제한 조치 (2021년)</li> <li>• 군 관련 국영·민간 기업 4개, 인사 27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 (2022년)</li> <li>* 최근 인권 탄압 관련 일반특혜관세(EBA) 철회 여부가 이슈화된 적이 있음</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성이 군부 관련 기관 9개, 인사 2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li> <li>* 親군부 기업 Htoo Group(건설, 항공, 무역, 호텔, 요식업 등)과 회장 Tay Za를 제재 대상에 올림</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對미얀마 신규 공적 개발 원조(ODA) 보류 결정 (2021년)</li> </ul>

#### 〈참고〉 美 재무부 제재 대상

정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산업청, 국방조달청 및 제33, 77, 99 경보병사단(유혈 진압 직접 관여)</li> <li>• 미얀마 대외교역은행(MFTB), 투자상업은행(MICB) 등 국책은행 2개소</li> </ul>
기업 및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얀마경제지주공사(MEHL), 미얀마경제공사(MEC) 등 공기업 및 단체 15개</li> <li>• 친군부 인사 및 군 장성 소유 민간 기업 13개사</li> </ul>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 포함 군부 관련 인물 91명</li> </ul>

## 나. 2024년 들어 격화된 무력 분쟁과 경제 위축 상태 지속

- 2023년 10월 반군의 대규모 합동 공세가 시작되면서 군부 정권의 최대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 최근 현지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
- 국가행정위원회(SAC)는 2023년부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해왔으나, 정세 불안이 계속되자 이를 무기한 연기하고 국가비상상태를 계속하여 연장해오고 있음 (2024년 8월에 4번째로 연장)
- 국가비상상태의 연장 및 경제보호조치의 강화, 무력 분쟁에 따른 공급망 및 대내외 물류의 혼란 발생 등으로 인해 위축된 경제 상황이 지속
  - \* 중국과 태국의 육로 무역로가 반군의 통제로 넘어가면서 육로 수출과 수입 감소
- 관광업(국내), 금융, 헬스 분야에서 일부 완만한 성장세는 보이고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어 가계 소비는 위축되고 경기 회복은 고전을 겪고 있음
  - \* 물가상승률 : 2022년 27.2%, 2023년 22.0%, 2024년 15.5%

## 다. 2025년 말 총선 실시 선언 및 인구조사 실시 계획 추진

- 2023년 8월 국가행정위원회(SAC) 의장은 2025년 말에 총선을 치를 것이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로 인구조사를 2024년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
  - \*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정당한 선거의 재실시를 명분으로 2021년 2월 쿠데타를 단행하여 집권한 바 있음
- 다만, 최근 심해지는 무력 분쟁으로 인해 지방 및 소수 민족 거주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가 곤란하여 인구조사 등에 있어 난항은 있을 수 있음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국가비상사태 속에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외환무역 통제 강화
- ※ 국제 금융 제재 확대 및 이에 따른 외환 위기와 경기 침체 지속
- ※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소비 시장은 위축

### 가. 정치 환경

#### □ 군(軍)에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 중심제 정치체제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3권 분립이 보장되는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군(軍)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

- 국방부, 내무부, 국경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연방 상원의원 110명 및 하원의원 56명에 대한 지명권을 군 총사령관이 보유 (\*개헌 저지선 의석수와 동일)
- 대통령 후보 3인 중 1인을 총사령관이 지명 (\*상·하원 의장이 나머지 각 1명 지명)
- 전군(全軍) 통수권도 대통령이 아닌 군 총사령관이 독자적으로 보유

#### □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군정 체제로 전환 및 국가비상사태 지속

- 헌법 제419조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군 최고사령관이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단독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 2021년 2월 군부는 총선 결과에 불복하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임시통치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를 설치했으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24년 8월에는 이를 4번째로 연장했음

## 〈국가비상사태 연장 상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초 선포(1년)				자동 연장				자동 연장				1차 연장				2차 연장(~'24.2)				3차 연장(~'24.7)				4차 연장(~'25.2)			

- 2024년 7월 임시 대통령인 민쉐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하여 국가행정위원회 의장이자 최고사령관이 민 아웅 흘라잉이 임시 대통령 대행직을 맡고 있음

### 〈참고〉 미얀마 행정부 조직 개요 및 구조

#### □ 국가행정위원회(SAC) 개요 및 구성(2023. 9. 25. 개편)

- 설치 근거 및 역할
  - 헌법 제4장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국가 운영 원칙에 따라 설치
  - 전국적 평화의 회복, 공정한 선거의 재실시 및 민정 이양을 목표로 국권을 대행
- 조직 구성
  - (의 장)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
  - (부의장) 소윈(Soe Win) 부원수
  - (위 원) 현역 군 장성 5명, 장교 1명, 친군부 소수 민족 대표 1명 및 친군 정당 前 의원 등 민간인 7명

#### □ 행정부 조직도 및 부처별 장관(2024. 5. 28. 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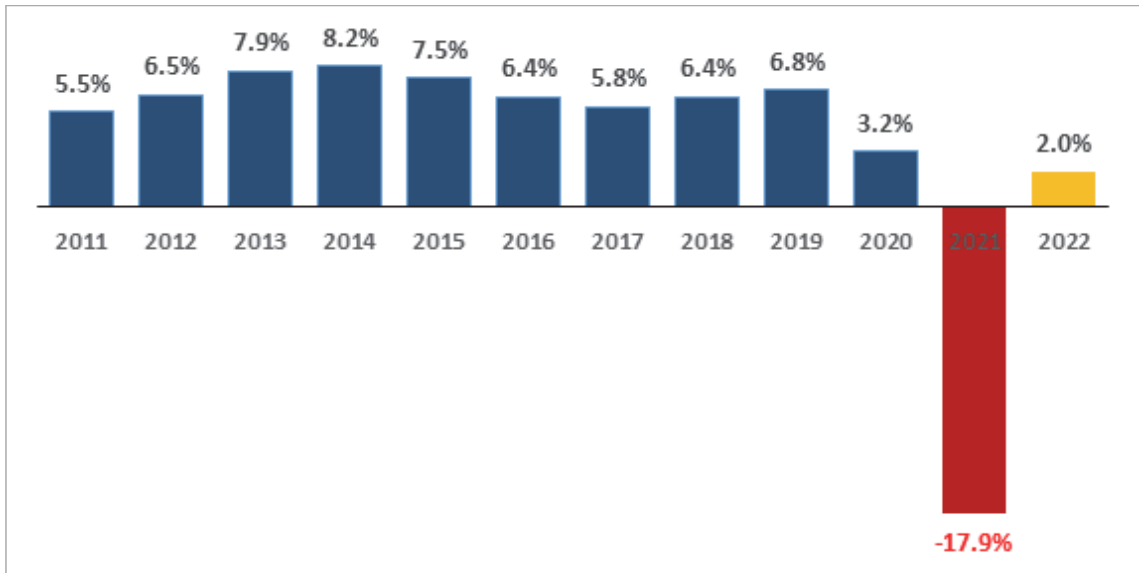


## 나. 경제 환경

□ 2021년 최악의 경제성장률 기록 이후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지속

- 미얀마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까지는 경제성장률이 매년 6% 내외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으나, 2021년 들어 17.9% 감소

〈최근 10년간 실질GDP 성장률 추이〉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 2023년 경제성장률은 2%로 소폭 반등했지만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하며, 글로벌 경제 기관들은 3~4%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로 현지화 가치 하락

- 국제사회의 제재 리스크 속에서 상당수 서방권 투자 기업들이 철수했고, 경제난에 따른 대외신뢰도가 약화되면서 현지화(Kyat)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

\* 미얀마 중앙은행 공식 환율(달러당) : 1,330Kyat<sup>(21.1월)</sup> → 1850Kyat<sup>(22.4월)</sup> → 2,100Kyat<sup>(22.8월)</sup>

□ 경제난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도 위축

- 환율 인상으로 식품·식자재 등의 생활소비재 가격이 2~3배 상승하고 있어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위축되고 있음
- 구매자관리지수(PMI)는 2023년 4월에 57.4까지 상승하였다가 美 은행의 달러화 중개 중단 소식이 발표되면서 12월에 42.9로 하락하였음. 2024년에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5월에 52.1을 기록하다가 최근 8월에는 43.4로 하락함

〈참고〉 주요 생필품 가격 및 구매자관리지수(PMI)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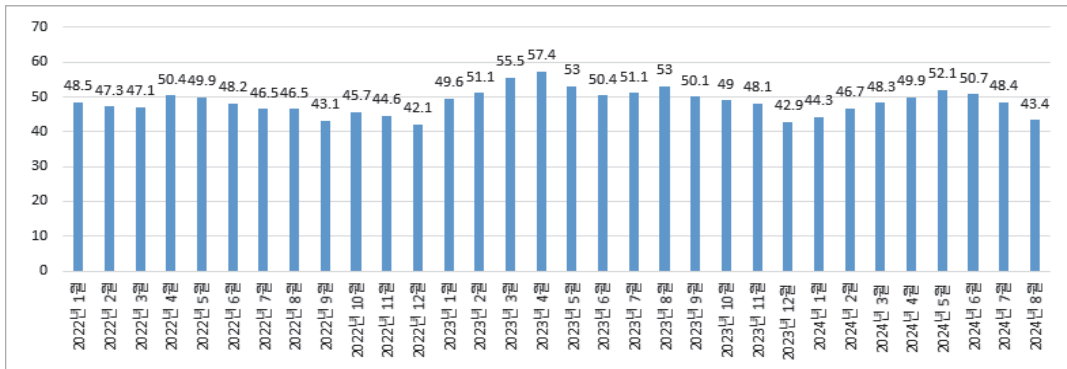
□ 주요 생필품의 가격 상승 동향 (단위: Kyat, %)

품목	세부 품목(품종)	단위	2021.2월	2024.9월(추산치)	증감률
쌀	Emata 품종	Pyi	1,565.70	4,800.00	206.6%
설탕	평균가	Viss	1,255.00	6,000.00	322.3%
식용유	Groundnut oil	Viss	6,965.48	18,500.00	101.0%
	팜유	Viss	2,582.91	6,900.00	120.7%
콩류	Gram	Viss	2,398.48	7,500.00	191.9%
	Penilay	Viss	4,829.22	15,000.00	189.9%
	Pegyi	Viss	3,089.71	10,000.00	223.7%
	Satawpe	Viss	2,380.23	11,000.00	320.1%
육류	닭고기	Viss	6,784.76	13,000.00	62.1%
	돼지고기	Viss	10,515.72	27,000.00	71.2%
	소고기 (순살)	Viss	14,598.15	24,000.00	50.7%
	양고기 (순살)	Viss	23,165.75	30,000.00	29.5%
비누	평균가	개	512.00	850.00	66.0%
치약	평균가	개	727.00	2,300.00	216.4%

주: 현지화는 '미얀마 짜트(Kyat)'로 환율은 \$1 = 2,100 Kyat임 (미얀마 중앙은행 공식 환율), 현지의 무게는 도량형 Pyi = 2.13kg, Viss = 1.6kg으로 환산 가능

자료 : 미얀마 통계청

□ 구매자관리지수(PMI) 조사 결과 (2022년 1월 ~ 2024년 8월)



주: 구매자관리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제조업체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자재 신규 주문, 고용, 생산, 납품, 재고 상황 등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향후 내수 소비에 대한 생산자들의 전망을 나타냄. 0~100 사이 수치로 표시되며, 0은 악화, 50은 유지, 100은 소비 진작 기대로 해석

자료: IHS Markit

□ 대외교역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무역적자는 여전히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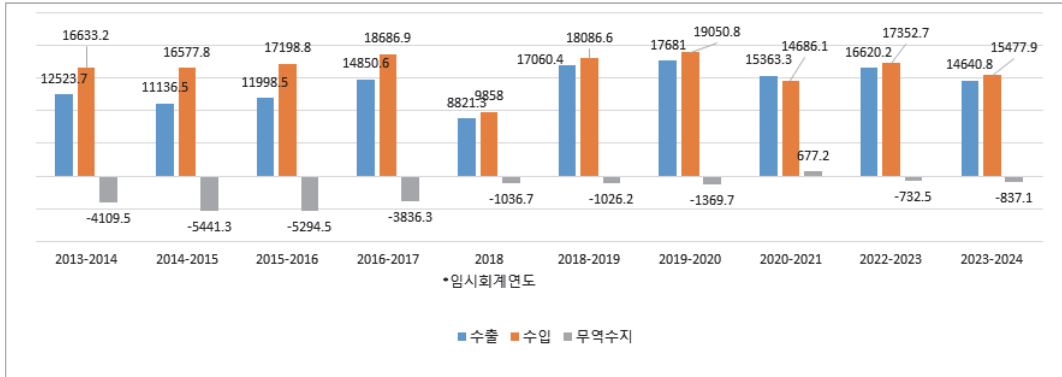
- 대외교역 규모는 경제 개방 이후 지속 증가했으나 2021년 외환통관물류의 행정들이 동시에 마비되면서 전체 교역액이 전년 대비 19.5% 감소
- 2022년 및 2023년에는 행정 시스템과 물류 인프라가 정상화되어 교역 규모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무역적자는 발생하고 있음
  - \* 지난 회계연도(2022.4월~2023.3월) 수출액은 166억 달러, 수입액은 173억 달러로 약 7억 달러의 무역적자 발생
- 2023년 10월부터 격화되고 있는 무력 분쟁으로 인해 국경 게이트들이 폐쇄되어 국경 교역량이 감소되었고 공급망의 물류 혼란도 야기되고 있음

□ 현지 투자는 정세 불안 등 리스크 속에서 계속 부진

- 미얀마는 2011년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해 법령과 인프라를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
  - \* 2016년 외국인투자법 제정, 2017년 회사법 제정 및 온라인 기업 등록 시스템(MyCO System) 구축을 통한 투자자 행정 편의 제공
  - \* 2018년 외국 기업의 도소매유통업 진출 및 사교육 분야 단독 투자(100%) 허용, 무역업 진출 기업의 취급 가능 품목도 확대
- 2021년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국·영국·EU 등의 제재로 인해 서방권 투자 기업들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에서 철수했고, 이후 인권 탄압 문제, 치안 불안, 시장 수요 위축 등의 비즈니스 저해 요인들이 잇따라 대두
- 중국, 태국, 러시아 등 제3국의 자본 유치와 내국인의 투자 확대를 통해 감소분을 대체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회복세는 관찰되지 않음
- 참고로 2022~2023 회계연도의 투자 승인액은 16.4억 달러로 2020~2021 회계연도의 43.3%에 그쳤으며, 2023~2024 회계연도 실적도 6.6억 달러로 부진
  - \* 투자 승인액 : (2017~2018년) 5,718.1백만 달러 → (2018년 임시회계연도, 2018.4.~2018.9.) 1,764.7백만 달러 → (2018~2019년) 4,158.5백만 달러 → (2019~2020년) 4,880.9백만 달러 → (2020~2021년) 3,791.4백만 달러 → (2021~2022년 임시회계연도, 2021.10.~2022.3.) 647.1백만 달러 → (2022~2023년) 1,640.7백만 달러 → (2023~2024년) 661.6백만 달러 → (2024~2025년, 2024.4.~2024.8.) 207.6백만 달러

〈참고〉 대외교역 규모 추이 및 주요 기업 투자 철수 현황

□ 대외교역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상기 문단 및 표에서 기술한 연도는 미얀마식 회계연도임  
 자료: 미얀마 상무부

□ 주요 기업 투자 철수 현황

기업명	투자국	투자 분야	투자 철수 및 중지 상황
AEON	일본	쇼핑몰	• 현지 기업 Shwe Taung社와의 합작으로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쇼핑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으나(AEON 지분 70%) 2021년 비상사태 이후 진행 중단
Kirin Holdings	일본	주류	• 군부 기업인 미얀마경제지주공사(MEHL)와의 합작으로 주류 사업에 투자하여 Myanmar Brewery 및 Mandalay Brewery 지분의 51%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불매 대상이 되는 등 사업 실적이 악화되어 2022년 9월 철수 * MEHL: Myanmar Economic Holding Ltd
Lim Kaling	싱가포르	담배	• 미얀마경제지주공사와 Tobacco Group과의 합작 투자 중이었으나 투자금 회수 결정
Amata Corporation	태국	부동산 개발	• 1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중단
Woodside	호주	에너지	• 2022년 1월 해상 광구를 매각(2억 9,500만 달러)하고 철수
Telenor	노르웨이	통신	• 군부 인권 탄압 문제와 사업성 악화로 인해 사업 철수를 추진하고 있음
Total Energies	프랑스	에너지	• 인권 탄압을 규탄하며 가스전 개발 사업 철수 발표
Chevron	미국	에너지	

## 다. 산업 환경

□ 경제 개방 이후 2·3차산업 비중 증가했지만 1차산업도 여전히 중요

- 2023년 GDP 기준으로 산업별 비중은 1차산업 22.3%(27조 9,936억 짜트), 2차산업 38.3%(47조 9,385억 짜트), 3차산업 39.4%(49조 4,067억 짜트)를 차지
-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조(가공)업 25.6%(32조 360억 짜트), 도소매업 20.8%(26조 916억 짜트), 농업 13.8%(17조 3,332억 짜트), 운송업 10.4%(12조 5,882억 짜트), 축산업 및 어업 8.5%(10조 6,057억 짜트)의 5개 분야들이 전체의 79.1%를 차지

□ 농업은 수출 기여도가 높고 경제 사활(死活)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산업

- 풍부한 수자원과 광활한 국토, 온난한 기후로 인해 대표 작물인 쌀을 대량 재배하고 있고, 이외에 다양한 곡물, 과일, 채소 및 특용작물까지 두루 생산
  - \* 주요 재배작물은 쌀, 콩류, 옥수수임 (콩류 생산량은 아세안 국가 중 2위, 쌀 생산량은 4위)
- 전체 생산인구의 68%가 농업에 종사하고 전 국토의 17.95%(2021년)를 농산물 재배에 활용하고 있는데, 생산성과 수익성은 인근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제조업의 대다수는 의류 가공업으로 현지인의 가계 소득을 지탱하는 중요 분야

- 의류 제조 공정에서 CMP(재단·봉제·패킹) 단계를 위탁받아 임가공하는 수탁가공무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대외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으로부터 국경 운송을 통해 원부자재를 조달받는 경우가 많아 운송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급여의 약 50%를 친지들에게 재분배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본다면 가계 소득을 지탱하는 데 있어 큰 역할

\* 공장에 종사하는 약 70만 명의 노동자들 대부분(약 80%)이 16~27세의 젊은 여성들(전국 여성 노동자의 약 10%)로서 보육 서비스, 음식 서비스도 밀접히 연계

□ 넓은 땅 아래 풍성한 지하자원이 묻혀 있지만 탐사 및 개발 기술은 부족

- 지질구조가 다양해 우라늄(Uranium), 페그마타이트(Pegmatites), 알라스카이트(Alaskite) 등 주요 광물과 루비, 옥(Jade) 등 귀금속의 매장량이 풍부
- 해상 광구에는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데, 천연가스 매장량은 2,832억㎥(세계 40위)이고 원유 매장량은 5천만 배럴(세계 75위)임

〈참고〉 산업별 생산 비중 및 ASEAN 국가별 농업 생산량

□ 산업별 생산액 및 비중 (단위: 십억 Kyat, %)

구분	세부 분야	2018~2019년	2019~2020년	2020~2021년	임시회계연도 '21.10~'22.3	2022~2023년 '22.4~'23.3	비중(%)
1차 산업	농업	14,426.6	14,849.8	15,131.3	12,639.2	17,333.3	13.8
	축산업, 수산업	7,962.9	8,652.2	9,333.5	5,526.0	10,605.7	8.5
	임업	87.5	85.6	65.2	25.4	54.6	0.0
2차 산업	에너지 관련	4,686.3	4,267.4	3,239.5	2,304.4	5,867.7	4.7
	광업	1,026.5	1,026.5	840.3	394.3	819.6	0.7
	제조업	26,062.3	28,801.5	27,717.5	20,596.0	32,036.1	25.6
	발전산업	1,474.7	1,906.9	1,765.3	840.7	1,675.4	1.3
	건설업	6,707.2	7,417.3	6,617.9	3,938.1	7,539.8	6.0
3차 산업	운송업	11,838.8	12,085.2	10,708.4	6,652.6	12,588.3	10.0
	통신업	2,077.8	2,263.1	2,334.0	1,225.9	2,559.9	2.0
	금융업	392.7	418.9	393.1	194.2	455.8	0.4
	서비스업	3,458.4	3,609.9	3,604.6	1,800.5	3,729.7	3.0
	임대업·기타서비스	3,418.6	3,604.9	3,408.0	1,979.4	3,981.4	3.2
	도소매·유통업	21,638.3	23,692.8	23,047.1	16,927.8	26,091.6	20.8
계	105,258.5	112,769.7	108,205.7	75,044.6	125,338.9	100.0	

자료: 미얀마 통계청

□ ASEAN 국가별 농업 생산량 (2023년)

국가	총 국토 면적 (천Ha)	총 경지 면적 (천Ha)	GDP 비중 (2022년)	쌀 생산량 (천 metric ton)	옥수수 생산량 (천 metric ton)	콩류 생산량 (천 metric ton)
브루나이	527	13.4	1.1	3.6	-	0
캄보디아	17,652.0	6,099.1	22.2	11,623.9	792.5	19.4
인도네시아	189,255.5	64,600.0	12.4	54,749.0	23,342.4	301.5
라오스	23,080.0	2,031.0	17.8	3,781.6	462.8	4.8
말레이시아	32,855.0	8,571	8.9	2,364.5	60.0	0
미얀마	65,270.0	12,980.0	22.6	27,446.0	2,311.4	195.6
필리핀	29,817.0	12,683.0	9.5	19,904.0	8,462.0	0.4
싱가포르	71.8	0.7	0	-	0	0
태국	51,089.0	23,500.0	8.8	32,977.8	4,937.8	20.9
베트남	31,342.9	12,360.0	11.9	42,661.6	44,893.4	52.1

자료: 미얀마 기획재정부 (\* 현지 회계연도로 표기)

## 라. 정책·규제 환경

### □ 농업 육성 정책 추진 : 자급자족 경제 실현 목표

- 미얀마 정부는 **舊 민주 정권(NLD)** 및 **現 군정** 모두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농업 육성 및 기간 산업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
- **現 군정**의 투자대외경제관계부는 **舊 민주 정권(NLD)**이 수립했던 중장기 경제구호계획(MERRP)을 바탕으로 구성한 경제회복계획(MERP)을 추진 중
  - \* MERRP : Myanmar Economic Recovery and Reform Plan
  - \* MERP : Myanmar Economic Recovery Plan
- 경제회복계획(MERP)은 자급자족 경제 실현을 위한 농업 육성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본 구상은 **舊 민주 정권(NLD)**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동 정책의 기초는 농기계·화학비료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의 우선적 발급, 쌀 생산 증대 계획 등 무역 투자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

#### 〈경제계획별 농업 육성 정책 세부사항〉

- (2018년) 지속가능개발계획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 2018년 8월 발표되어 3개의 핵심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3개 핵심 목표 : Peace & Stability, Prosperity & Partnership, People & Planet)
  - 5개 세부 과제에서 경제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고 농업 현대화, 기술 개선, 상업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
- (2020년) 코로나19 경제구제계획 (Covid-19 Economic Relief Plan)
  - 2020년 4월 긴급 발표되었고 총 72개 이행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 내용으로는 통화량의 확대,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을 통한 단기적 부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중장기 투자의 활성화, 수출입 촉진,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 대응 등임
- (2020년) 경제구호계획 (Myanmar Economic Recovery and Reform Plan)
  - 2020년 10월 CERP를 바탕으로 추가 수립되었음
  - 중장기 관점에서 총 130여 개의 이행 방안을 보완하고, 특히 농업, 디지털 경제, 제조업 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음
- (2021년) 경제회복계획 (Myanmar Economic Recovery Plan)
  - 現 군정의 경제계획으로, 중점 추진 과제(잠정)로는 농업 및 관광 분야의 활성화, 조세 개혁,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 환율 개입 강화 등임
  - '자급자족 중심'의 농업 육성이 기본임

□ 2022년 들어 금융 규제와 무역 통제 조치 도입 및 국제 제재 추가

- 외화 유출과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화 의무 환전 조치 및 수입 라이선스 적용 범위 확대 및 심사 강화 등의 각종 금융 규제와 무역 통제 조치 시행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고위험국 지정 등 국제 사회의 금융 제재 추가

〈대내외 리스크 발생 및 규제 발표 내역〉

발표일	현안 및 규제	주요 내용
2021.02.01.	군부 쿠데타 발생	• 군부, 국가비상사태 선포, • 국제사회는 경제 제재 부과 시작
2022.04.03	중앙은행 4·3 조치 발표	• 달러화 강제 환전, 보유 금지, 역내 송금 금지 • 외환감독위원회(FESC)를 신설하고 대내외 외환 거래 통제 시작 * 중앙은행 공식 환율(1\$=1,850MMK) 지정
2022.06.01.	수입 라이선스 제도 강화	• 상품 수입 시 건별 발급되는 수입 라이선스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강화 * 무역적자로 인한 외화 유출 방지 목적
2022.08.05.	중앙은행 공식 환율 상향 조정	• 달러당 1,850MMK → 2,100MMK (* 현재까지 추가 조정은 없음)
2022.10.21.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미얀마를 고위험국으로 지정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미얀마를 '고위험국' 중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 필요국(EDD, 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으로 지정
2023.04.01.	JP모건궤 달러화 중개 중단	• 美 JP모건체이스 은행, 미얀마 현지 은행 向發 달러화 중개 중단 → 국제 달러화 송금량 대부분이 단절
2023.06.20.	美 재무부, 국책은행 제재	• 미얀마 대외무역은행(MFTB), 투자상업은행(MICB) 등 2개소 대상
2023.07.03.	중앙은행, 무역 대금 송금 통제	• 수입 라이선스 선 발급 후 선적 완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달러화 송금 금지
2023.08.21.	중앙은행, 외환관리법(1인 1만 달러) 엄수 경고	• 1인당 1만 달러 이내만 보유 허용(최대 6개월)된다는 외환관리법 규정을 엄수할 것을 경고
2023.09.01.	싱가포르계 은행, 달러화 중개 중단 동참	• 싱가포르 대화은행(UOB), JP모건의 달러화 중개 중단 조치에 동참 * 他 싱가포르계 은행들의 동참 시 사실상 모든 달러화 거래 창구 단절
2024.07.11.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고위험국 등급 유지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미얀마를 2022년 10월 총회 결과 '고위험국' 중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 필요국(EDD, 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으로 지정했는데, 이번에도 동 등급으로 유지 결정

## 【금융 통제】

□ 달러화의 의무 환전(25%), 계좌 간 거래 금지, 해외 송금 제한 실시 (2022. 4. 3.)

-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위기 타개를 위해 자국 내 개설된 계좌 내의 달러화 의무 환전, 계좌 간 거래 금지 및 해외 송금 제한 조치를 단행

### 〈주체 유형별 외환 보유·거래 제한 내용〉

거래 유형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등록 기업 등 예외 적용 대상	그 외의 모든 주체
달러화 보유	• 4·3 조치(2022년 중앙은행) 전후로 송금받은 달러화 보유 가능	• 보유 달러화 일괄 강제 환전 * 수출 기업은 수출 대금의 50%를 1개월간 보유 가능
계좌 거래	자국 내 송금	• 역내 계좌 간 달러화 이체 금지
	해외 송금	• 외국인 급여·역외 이체, 자본금 회수, 배당, 원자재 구입 대금 송금 허용(FESC 승인 必)
	달러화 매입	• 사용 목적 검토 후 승인(FESC, 중앙은행) * 필수재 수입용 달러화 매입 조건부 승인
	달러화 인출	• 사무실 운영비로 제한(은행 심사 必, 한도 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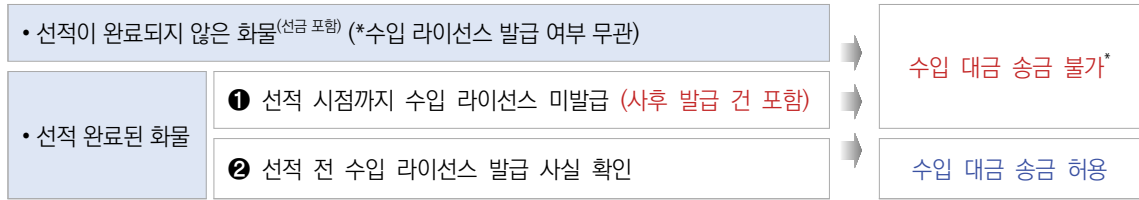
주: 예외 적용 대상은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ttee, MIC) 등록 기업, 경제특구(SEZ) 입주 기업, 외국인 지분율 35% 이상 기업, 자국 항공사 및 외교관, 국제기구 외국인 직원 등임

- 동 조치에 따라 수출 기업이 획득한 달러화의 25%는 의무 환전되며, 나머지는 1개월 이내에 사용하거나 중앙은행 지정 수입 업체에게 양도해야 함
- 중앙은행은 의무 환전 시 지정 환율인 달러당 2,100Kyat 적용  
\* 규제 도입 시에는 달러당 1,850Kyat이었고 2022. 8. 5. 상향 조치하여 현재까지 유지

□ 무역 대금에 대한 송금 제한 조치 도입 (2023. 7. 3.)

- 수입자가 수입 라이선스를 먼저 획득한 다음에 화물 선적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거래에 한해 외환(수출 대금) 송금을 허용  
\* 계약금을 포함하여 거래 관련 선금의 송금은 원칙상 금지
- 다만, 외환감독위원회는 선금 지불의 승인 여부를 ①수입 대상 품목의 필수재 해당 여부, ②지불 통화의 유형(中 위안화, 泰 바트화 우선 고려) 등으로 판단  
☞ 사실상의 수입 품목 및 통화 제한 조치로서 기능

### 〈상황별 외환 송금 가능 여부〉



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선금 지불 건은 외환감독위원회(FESC)가 사전에 건별 검토 후 승인

### 【무역 통제】

#### □ 사업 수입 허가를 필요로 하는 수입 라이선스 발급 대상 확대 (2023년)

- HS 코드 10자리 기준으로 총 11,849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유효 기한도 30일(아시아 지역) 및 45일(그외 지역)로 크게 단축했음
- 기존 발급 대상은 HS 코드 10자리 기준으로 총 4,405개 품목이었으나 제도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전(全) 품목이 라이선스 발급 대상이 되었음

#### □ 수입 라이선스의 Non Automatic Licensing 품목 확대 (2024. 8. 1.)

- 미얀마 상무부는 사전 수입 허가를 필요로 하는 Automatic Licensing 품목 1,532개 중 1,460개 품목을 Non Automatic Licensing 품목으로 변경
- 이에 따라 신속 발급 대상인 Automatic Licensing 품목은 72개임

#### □ 수입 라이선스 관련 참고사항

- 미얀마는 1947년 제정된 미얀마 수출입법(Myanmar Import and Export Act)에 근거하여 수입 라이선스를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상무부가 지정한 품목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바이어가 거래 건별로 라이선스를 받아야만 함
- 2011년 경제 개방을 계기로 적용 대상 품목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했는데,

- 2021년 들어 외화 유출 방지 및 자국 경제 보호를 목적으로 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일부 필수재(유류, 의약품, 비료, 농기계 등)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사치재'로 규정하고 라이선스를 후순위로 부여하고 있음
- 대부분의 품목들은 라이선스 발급에 최대 6개월이 소요되고 있음
  - \* 위안화(中), 바트화(泰) 육로 수입 건에 한해서는 1개월 이내 발급 중으로 확인

## 【국제 사회의 추가 금융 제재】

###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미얀마의 고위험국 등급 유지 (2024. 7. 11.)

- 2022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미얀마를 고위험국(High risk Jurisdiction) 중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Enhanced Due Diligence) 필요국으로 지정
- 동 결정에 따라 미얀마 민간 은행들의 외환 거래 여건이 크게 악화됐으며,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미얀마로부터의 거래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
- 2024년 6월 개최된 FATF 총회는 미얀마를 같은 등급으로 유지하기로 결정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단계별 조치 내용 및 대상국〉

단계		조치 내용	대상 국가
①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①-(1) 대응조치 (Counter-measure)	금융 거래 전면 금지 등	북한, 이란
	①-(2) 강화된 고객 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금융 거래 시 고객 확인 강화	미얀마
②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시스템 개선	시리아, 튀르키예 등 23개국

### □ 달러화 중개 중단으로 인한 국제 결제망 단절 (2023. 4. 1.)

- 2023년 4월 1일 미국과 싱가포르의 주요 은행들이 미얀마 현지 은행들과의 달러화 거래를 전면 중단
  - \* 美 JP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 뉴욕멜론(BNY Mellon) 중개 비중 높은 은행이 단행
- 2023년 10월 1일 싱가포르의 대화은행(UOB, United Overseas Bank)이 이러한 중단 조치에 동참하면서 달러화 송금망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었음

□ EU, 미얀마 근로자의 인권 및 노동권 관련 무역 특혜(EBA) 변경 가능성 내재

- 미얀마의 봉제공장 근로자 인권 탄압 사례가 EU에 지속 보고되면서 유럽에서 '미얀마 ESG 이슈'가 대두

\* H&M, Zara, 인디텍스 등 다수의 유럽계 의류 기업들은 ESG 리스크를 이유로 미얀마 소싱 중단 선언

- EU 집행위는 '적극적 개입' 대상인 미얀마의 인권·노동권 현황 평가에 착수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무역 특혜(EBA, Everything But Arms)의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음 (2023. 8. 24.)

## 2. 시장 분석

- ※ 해외 수입(조달)에 크게 의존하고 소득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시장
- ※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임금의 마지막 아세안 신흥 시장

###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 (시장 특성)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소득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시장

- 전방산업이 취약하여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제조업이 임가공 형태여서 반(半)제품에 대한 수입 비중이 높고, 봉제업 이외에는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의 품목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시장의 규모도 큰 편임
- 경제 개방 이후에는 계층별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구매력 차이가 발생하고 소비시장의 세분화(Market Segmentation)가 두드러지게 형성되었는데, 최근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최단 계층으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

#### □ (전략적 가치)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임금의 마지막 아세안 신흥 시장

- 미얀마는 열대성 고온다우 지역으로 세계적인 쌀 생산지이고 콩·잡곡 등의 각종 농산물도 풍부해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이고, 긴 해안선(약 2,000km)을 따라 풍부한 해양자원도 갖고 있음
- 비옥한 토질과 복잡한 지질학적 구조로 인해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한반도의 약 3.5배에 달하는 넓은 땅속에는 각종 에너지와 광물자원이 풍성하게 매장
- 중국, 인도의 거대시장과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어 이들 대형 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높고, 더 크게는 동남아와 서남아를 연결하는 물류기지로서의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음
- 미얀마는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노동자의 임금이 매우 저렴하고 임금 대비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베트남의 1.6배)
- 이처럼 막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세안의 마지막 저개발 신흥 시장으로,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과 선점을 위한 준비가 요구되는 지역

## 나. 교역

□ 식용유, 의약품 등 민생에 직결되는 제품들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음

- 자체 생산되는 콩기름의 품질이 낮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팜유에 대한 수입 비중이 높고, 의약품은 사실상 생산 역량이 없어 거의 전량을 수입

□ 자동차, 전자제품 등 완제품이 주요 수입 품목

- 봉제업 외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소비되는 재화의 대부분을 자체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 전자제품, 자동차 등 기술력과 전방산업의 발달이 요구되는 품목들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앞으로도 계속 높을 것으로 보임

□ 산업용 원료 및 장비의 해외 수입의존도도 높은 편

- 농업 생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료, 농약 및 종자의 수입 비중이 높고, 농촌 현대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농기계의 수입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음
- 핵심 산업인 봉제업은 임가공 특성상 섬유, 원단, 액세서리 등 주요 원자재를 전량 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음

### 〈수입 상위 10개 품목 중 소비재 및 필수재 비중〉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	회계연도(미얀마 기준)							
		2019~2020년		2020~2021년		2021~2022년 임시 회계연도('21.10~'22.3)		2022~2023년	
	총수입	19,050.9		14,686.1		7,964.9		17,355.5	
1	정제유	2,927.4	15.4%	2,242.2	15.3%	2,045.8	25.7%	5,071.5	29.2%
2	기계 및 운송수단	3,271.8	17.2%	1,912.8	13.0%	540.4	6.8%	1,158.6	6.7%
3	비철금속 및 제조품	2,102.7	11.0%	1,099.6	7.5%	565.1	7.1%	1,124.9	6.5%
4	전자 기기 및 기구	2,209.4	11.6%	831.3	5.7%	388.8	4.9%	799.0	4.6%
5	플라스틱	811.3	4.3%	614.9	3.8%	650.2	8.2%	520.0	3.0%
6	식용 식물성 기름 등	651.6	3.4%	868	5.9%	317	4.0%	565	3.3%
7	의약품	555.3	2.9%	437.9	3.0%	289.2	3.6%	506.6	2.9%
8	비료	394.7	2.1%	234.4	1.6%	197.5	2.5%	522.9	3.0%
9	화학혼합물	183.3	1.0%	124.5	0.8%	78.4	1.0%	164.4	0.9%
10	시멘트	11.5		5.2	0.0%	6.6	0.1%	10.4	0.1%
	상위 10개 품목 합계	13,176.9	69.2%	8,370.8	57.0%	5,079	63.8%	10,443.3	60.2%

자료: 미얀마 통계청

### 〈참고〉 미얀마의 희토류 생산 현황

- **(부존자원)** 가치가 높은 중(重)희토류가 주로 매장되어 있으며, 디스프로슘(Dy)과 테르븀(Tb)의 연간 생산량은 전 세계의 30%를 차지함
- **(채굴 지역)** 북부 까친(Kachin)주의 뽀와(Pangwar), 칩웨(Chiphwe) 지역에 분포된 총 100여 개의 광산에서 집중적으로 채굴
- **(생산량)** '20년 3만 톤(전 세계의 12.5%)을 생산했으며 비상사태 이후 채굴 및 수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생산체계)** 광업부(Ministry of Mines)와 주정부가 채굴 사업을 총괄하고, 親군부 무장단체와 일부 민간 기업들이 광산을 운영하고 있음

<b>관리·감독</b>	광업부 산하 2호 채굴국(No(2) Mining Enterprise)	
<b>광산 개발 허가</b>	까친(Kachin) 주정부	
<b>채굴 사업자</b>	<b>① 親군부 무장단체</b> • 까친 국경수비대(BGF) * 까친독립군(KIA)을 이탈하여 군부와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협력 중	<b>② 민간 기업</b> • Myanmar Myo Ko Ko Company • San Lin Company • Shwe Sapar Mining Company 등

- **(수출)** 희토류 화합물(HS 코드 2846)의 수출대상국은 중국이 유일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중국이 채굴을 규제하면서 수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

### 〈최근 5년간 희토류 화합물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수출대상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b>중국</b>	152,784	387,673	811,632	585,876	1,449,451

자료: Global Trade Atlas

#### 참고 사항

- 2023년 이후부터는 소수 민족 무장단체가 채굴 및 對中 수출을 주도하고 있어 명확한 수출 통계 산출이 어려움 (현지 광업부 통제권 외)
- 상기 품목과 관련하여 현지 정부의 對韓 수출 규제는 없지만 채굴 주체와 미얀마 군부의 연관성, 채굴 과정에서의 인권 탄압 및 환경 파괴 문제 등 ESG 경영 관련 리스크가 다수 존재하여 공급선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

## 다. 투자

- 제조업, 부동산 개발, 교통/통신 등의 분야들을 중심으로 투자는 2011년 경제개발 이후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2021년 들어서는 크게 줄어들었음

### 〈산업별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8~2019년	2019~2020년	2020~2021년	임시회계연도 ('21.10~'22.3)	2022~2023년	2023~2024년	2024~2025년 ( '24.3~8월)
전력	93.3	1,026.9	3,121.3	20.6	820.3	374.5	3.7
제조업	1,347.8	1,128.2	286.0	202.7	271.8	151.4	75.6
부동산 개발	210.9	1,115.9	8.0	38.8	29.0	10.5	-
광업	-	3.8	-	-	7.0	-	-
농업	19.1	17.7	9.9	5.0	3.5	2.8	0.5
어업/축산	156.8	138.4	19.7	19.4	2.2	23.5	1.1
호텔/관광	82.6	53.3	81.0	30.5	2.8	-	-
산업단지	48.5	273.4	28.2	-	-	-	-
석유/가스	10.2	352.8	-	-	-	-	-
교통/통신	1,538.4	300.4	133.5	45.6	-	77.8	82.7
건설업	-	-	-	65.0	-	-	-
기타 서비스업	650.7	469.7	103.7	219.6	504.1	21.1	44.0
합계	4,158.4	4,880.9	3,791.4	647.1	1,621.4	661.6	207.6

자료: 미안마 투자위원회

- 2024년 8월 누적 투자금액 기준 최대 투자국은 싱가포르(262억 달러, 28.1%)이고, 그다음으로는 중국 (219억 달러, 23.6%), 태국(116억 달러, 12.5%), 홍콩(100억 달러, 10.8%), 영국(75억 달러, 8.0%) 등임

### 〈국별분야별 누적 투자유치액 (~'24.8월)〉

(단위: 백만 달러, %)

【국별】					【산업별】				
순위	국별	건수	투자액	비중	순위	산업별	건수	투자액	비중
1	싱가포르	378	26,210.0	28.1	1	전력	50	26,545.5	28.5
2	중국	640	21,994.5	23.6	2	석유/가스	154	22,773.4	24.6
3	태국	156	11,678.7	12.5	3	제조업	1,557	13,499.1	14.5
4	홍콩	303	10,004.9	10.7	4	교통/통신	63	11,534.1	12.3
5	영국	112	7,515.7	8.1	5	부동산 개발	67	6,603.5	7.1
6	한국	199	4,202.8	4.5	6	호텔/관광업	91	3,284.8	3.5
7	베트남	31	2,226.2	2.4	7	광업	71	2,913.3	3.2
8	말레이시아	69	1,961.0	2.1	8	축산/어업	80	970.6	1
9	일본	126	1,867.3	2.0	9	산업단지 개발	10	621.8	0.7
10	네덜란드	25	1,574.9	1.7	10	농업	46	448.22	0.5
11	기타	442	6,330.1	4.3	11	건설	3	102.8	0.1
12	-	-	-	-	12	기타 서비스	167	4,069.7	4.3
-	별도(SEZ)	122	2,199.0	2.3	-	별도(SEZ)	122	2,199.0	2.3
-	합계	2481	95566.1	-	-	합계	2481	95,566.1	-

자료: 미안마 투자위원회

- 무력 분쟁의 격화,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 등 투자 진출 기업의 경영 여건을 저해하는 리스크가 증가하고, 외화 의무 환전, 수입 라이선스 발급 기준 강화 등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투자 진출 기업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음

###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 가. 교역

##### □ 양국 간 교역 규모

- 한국과 미얀마 간 교역 규모는 대략 10억 달러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2021년 일시 감소했다가 2022년 들면서 10억 달러대를 다시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은 지난 36년간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했는데(\* 2018년 무역적자), 2021년 들면서는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음 (\* 2023년 무역흑자)

\* 현지 정부가 주력 수출 품목인 미용·화장품, 생활소비재,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 발급을 제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

#### 〈對미얀마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2014년	800,131	13.5	579,894	18.9	220,237
2015년	659,895	-17.5	505,679	-12.8	154,215
2016년	760,717	15.3	458,666	-9.3	302,051
2017년	573,209	-24.6	463,336	1.0	109,837
2018년	534,059	-6.8	536,583	15.8	-2,524
2019년	631,596	18.3	595,191	10.9	36,404
2020년	608,927	-3.6	465,871	-21.7	143,056
2021년	367,934	-39.6	445,759	-4.3	-77,825
2022년	384,321	4.5	629,081	41.1	-244,760
2023년	697,716	81.5	542,054	-13.8	155,662
2024년(~7월)	218,522	-23.0	285,645	-17.7	-94,176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품목별 교역 동향

【수출 품목】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정밀화학제품, 산업용 기계, 철강제품, 플라스틱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기술집약적 고(高)부가가치 제품으로 구성
- 봉제업의 원자재인 직물과 섬유제품 및 현지 농업 생산력 유지에 필수적인 비료도 對미안마 수출 상품 중 높은 비중을 차지

〈對미안마 10대 수출 품목 (2024년 8월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384,321	4.5	697,716	81.5	218,522	-23.0
1	화장품	36,214	99.7	45,411	25.4	38,401	33.4
2	승용차	2,685	-93.0	21,671	707.2	25,709	123.6
3	합성수지	12,634	38.2	6,577	-47.9	14,410	278.3
4	직물제의류	19,010	12.0	22,825	20.1	13,515	-2.4
5	편직물	24,610	9.8	22,032	-10.5	12,336	-10.2
6	복합비료	21,629	20.5	22,269	3.0	12,135	-26.0
7	의약품	13,758	-37.5	14,039	2.0	7,854	-20.9
8	기타가죽	10,792	80.4	10,625	-1.5	7,555	2.1
9	편직제의류	12,007	52.2	9,294	-22.6	6,005	-5.8
10	기타플라스틱제품	3,708	0.6	4,624	24.7	3,995	49.9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품목 코드는 MTI 4단위 기준)

**【수입 품목】**

- 미얀마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은 봉제 생산품(섬유제품) 및 임가공 방식으로 제조된 생활용품과 잡화 등 노동집약적인 제품으로 구성

**〈對미얀마 10대 수입 품목 (2024년 8월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629,081	41.1	542,054	-13.8	326,908	-7.5
1	직물제의류	373,656	44.7	332,989	-10.9	194,245	-7.2
2	편직제의류	97,306	59.9	92,073	-5.4	59,280	-5.1
3	신발	23,542	18.9	21,991	-6.6	13,229	-18.6
4	기타농산가공품	20,862	60.3	15,819	-24.2	11,738	10.4
5	기타섬유제품	7,941	23.7	8,170	2.9	6,907	28.9
6	두류	4,443	-26.7	5,152	15.9	3,951	9.9
7	가발 등	7,669	8.5	6,719	-12.4	3,893	-14.8
8	주석괴및스크랩	8,747	935.1	14,838	69.6	3,238	-66.6
9	천연고무	5,972	-20.3	2,258	-62.2	2,533	47.9
10	채유종실	15,318	236.3	1,095	-92.8	2,469	617.7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품목 코드는 MTI 4단위 기준)

**〈우리 기업 수출 성공 사례〉**

- (품목) 화학비료 / 성약 규모 : 16백만 달러 (기업명은 영업상 사유로 비공개 처리)
- (수출 의의) '수입 라이선스 우선 발급 대상 품목(현지 정부 지정 자국 산업필수재)'으로 수출 성약에 성공한 케이스로, 현지 정부가 외환 유출 방지를 위해 비(非)필수 소비재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장 진출의 방향성을 제시 (현지 공급망 특성을 활용한 성약 사례로도 의미)

## 나. 투자 진출

- 2023년 한국의 對미얀마 누적 투자액\*은 1,700만 달러로 전년의 1억 8천만 달러에 비해 약 90% 감소

\* 단, 對미얀마 투자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 1980년 1월부터 2023년까지 집계한 투자신고금액 합계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가 합산한 투자승인액과 상이

### 〈연도별 對미얀마 투자신고액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건수)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투자액	329	319	194	211	729	146	182	17
(건)	(178)	(199)	(159)	(211)	(101)	(49)	(38)	(3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로는 광업(39.5억 달러), 금융업(10억 달러), 제조업(8.9억 달러), 운수 및 창고업(7억 달러) 등이었음

\* 광업 투자는 자원 개발에, 제조업 투자는 봉제업에 각각 집중된 것으로 추정

### 〈2023년 對미얀마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건, 개사, 백만 달러, %)

업종 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		투자	
			금액	%	금액	%
광업	24	9	3,945	56.2	2,944	55.1
제조업	631	166	896	12.8	641	12.0
농업, 임업 및 어업	39	13	31	0.4	12	0.2
건설업	129	69	17	0.2	10	0.2
도매 및 소매업	109	54	104	1.5	85	1.6
운수 및 창고업	86	15	704	10.0	345	6.5
숙박 및 음식점업	16	10	63	0.9	2	0.0
정보통신업	22	8	4	0.1	4	0.1
금융 및 보험업	111	27	1,036	14.8	782	14.6
부동산업	95	24	183	2.6	120	2.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0	50	13	0.2	10	0.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2	22	8	0.1	5	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6	3	1	0.0	0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3	4	7	0.1	3	0.1
기타	37	17	7	0.1	380	7.1
합계	1,470	491	7,019	100.0	5,343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다. 협력 유망 분야

### • 근로자 교류 확대 : 현지 근로자를 선발하여 송출 후 일자리 제공

- (한국) 노동 유연성 부족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처
- (미얀마)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근로소득 확대 및 기능 개발 기회 획득

#### 〈대표 사례〉 고숙련 조선 용접공 인력 송출 사업

- 미얀마 노동이민주민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 및 국가기술표준당국(National Skills Standards Authority)과의 협업으로 충분한 기량을 갖춘 조선 용접공을 선발하여 해외 업체로 인력 송출 진행
  - ☞ 현재는 교육훈련 과정을 국가기술표준당국에 위임하고 있으나, 앞으로 교육훈련 지원으로 협업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유의사항으로는 파견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없어지거나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송출 인력에 대해 한국 내 비자와 체류 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

### • 전문인력 교류 확대 : 국내 전문인력의 현지 파견 또는 현지 인력의 초청교육

- 국내 전문인력을 미얀마 현지로 파견하거나 현지 전문인력을 초청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선진 기술 및 지식을 전파

#### 〈대표 사례〉 해우농수산 영농지도자 육성사업

- 핀우린 지역에 진출한 채소 계약 재배 가공단지에 대한 노동력 조달을 위해 영농지도자 교육과정을 제공
- 미얀마 농업국 채소연구소 부지를 제공받았으며 현지인 대상 파종, 육묘, 재배 등 영농기술 전파를 수행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 성장 모델로 의미를 가짐

- 미얀마 민간병원협회(Myanmar Private Hospitals' Association)는 우리나라와 의료 분야 교류협력을 희망(현지 의료인력 한국 초청 교육 또는 한국 의료진 파견 교육)하고 있는데, 현지 병원이 의료장비 구매 결정 시 자국 의료진의 장비 사용 숙련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단, 우리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며 정부 간 협력을 중단하여 G2G 형태의 협업 추진은 보류 ·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풍부한 자원과 중국·인도 등의 접근성이 우수한 아세안의 마지막 신흥 시장
- ※ 정세 불안, 국제 사회의 제재 및 대내 규제 등은 중단기 리스크로 작용

## 1. PEST 분석

<p><b>Political</b> 정치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군정 체제로 전환 및 국가비상사태 지속</li> <li>• 군(軍)에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 중심제 정치체제</li> <li>• 자급자족 경제 실현을 목표로 농업 육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li> <li>• 2023년 10월 들어 국내 무력 분쟁의 격화 및 이로 인한 물류 혼란</li> <li>• 수입 라이선스 적용 범위 확대 및 심사 절차 강화</li> <li>• 무역 대금에 대한 송금 제한 조치 실시</li> <li>• 은행 계좌의 달러화 의무 환전, 계좌 간 거래 금지, 해외 송금 금지</li> </ul>
<p><b>Economic</b> 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방권은 군정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 제재를 부과</li> <li>•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고위험국 지정 유지</li> <li>• 미국, 싱가포르 은행들의 달러화 중개 중단으로 인한 국제 결제망 단절</li> <li>•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1~2% 내외로 정체</li> <li>• 국제 금융 제재 이후 외환 부족 현상 발생</li> <li>•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서 최대 2배 이상으로 물가 인상 지속</li> <li>• 무역적자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 등 부정적인 대외경제지표</li> </ul>
<p><b>Social</b> 사회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개방 이후 고품질,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중상위 소비층 형성</li> <li>• 최근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서 소비계층의 양극단화 현상 심화</li> <li>• 도시 지역에서는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서구적 트렌드 유행</li> <li>• 한류(韓流)의 영향으로 K-Beauty, K-Food 관련 수요의 지속 확대</li> </ul>
<p><b>Technological</b>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수급난 타개를 위해 태양광 발전 비중의 확대</li> <li>• 전기차, 배터리 및 관련 품목의 조기 도입 장려</li> <li>• 제조업은 노동집약형 임가공 산업에 집중,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여전</li> <li>• 고도로 숙련된 기술 인력의 부족</li> <li>•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부족</li> </ul>

##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 강 점(Strength)

- 한류를 기반으로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
- 아세안 최저 수준의 저렴한 인건비
- 인도, 중국 등 유망 시장으로의 접근성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약 점(Weakness)

- 무력 분쟁의 격화로 물류 혼란 및 차질 발생
-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약하는 낮은 소득수준
- 고도로 숙련된 기술인력의 부족
- 정세 불안으로 인해 현지 출장에 어려움이 있음

### 기 회(Opportunity)

- 한류 열풍으로 인한 우호적 소비계층
- 경기 침체에도 흔들림 없는 상류층 구매 수요
- 현재 위축되고는 있지만 경제 개방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중산층

### 위 험(Threat)

- 정치 및 경제적 불확실성의 지속
-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 지속
- 비(非)필수 소비재에 대한 수입 규제
- 수입 라이선스 등으로 인한 수입 수요 위축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에 비탄력적인 소비계층에 대한 공략 집중</li> <li>• 한류를 활용하여 경기 침체 속 틈새시장 공략</li> </ul>	K-브랜드 활용 수출 마케팅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라이선스 우선 발급 대상 품목 발굴 및 지원</li> <li>• 봉제, 농업 등 핵심 산업의 틈새 품목 포착</li> </ul>	수출 기회 포착 틈새 품목 수출 지원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집약적이면서 수입 라이선스에 덜 취약한 분야(품목)를</li> <li>• 발굴하여 사이버로 매칭 지원</li> </ul>	사이버를 활용한 버추얼 파트너링
WT 전략 (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라이선스, 해외 송금 제한 등의 무역 관련 규제사항들과 관련된 현장 정보 적시 제공</li> </ul>	한국투자지원센터 정보 제공 강화

###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p><b>K-소비재 수출 확대 노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이후 한류 열풍으로 우호적 소비계층의 증가</li> <li>• 서구 및 중국 제품에 대한 상대적 이점을 활용한 마케팅 추진</li> </ul>
<p><b>수입 우선 분야 틈새 기회 포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비료, 농기계 등 수입 라이선스가 우선적으로 발급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우리 유망 품목의 틈새시장 공략 지원</li> </ul>
<p><b>수입 라이선스 등 무역 규제 대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라이선스 발급 대상 품목의 확대 및 기준 강화</li> <li>• 무역 대금의 대외 송금(달러화) 제한</li> </ul>
<p><b>진출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상위 소비층이 좋아해주는 K-소비재 진출 지원</b> * 한류에 힘입어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미처 닫히지 않은 현지 중상위층의 지갑을 타깃 (화장품, 가공식품)</li> <li>☞ <b>수입 우선 품목 및 라이선스 면제 품목의 틈새시장 공략</b> * 현지 규제와 외부 제재로 오히려 우선시되는 수입 라이선스 우선 발급 대상 품목의 수출 기회 포착 (의약품, 의료기기)</li> <li>☞ <b>수입 라이선스 등의 무역 규제 대응</b> * 바이어가 구매를 결정하더라도 라이선스를 발급받지 못하면 수입 직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li> </ul>

### 3-1. 중상위 소비층이 좋아해주는 K-소비재 진출 지원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중산층은 위축되는 반면 상류층의 구매력은 유지되면서 소비계층 간 양극화 현상 심화
- ※ 한국의 샌드위치적 입지와 한류 열풍을 활용하여 K-소비재로 미처 담하지 않은 중상위층을 타깃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산층의 확대 추세가 주춤해지고는 있지만, 상류층은 여전히 구매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소비계층 간 양분화 현상 심화

#### 〈소비계층 간 양극화 현상 비교 분석〉

구분	중상위 소비계층	일반 소비계층
제품수요	• 화장품, 미용제품, 가전제품, 가공식품	• 식료품, 위생용품 등 기초 생활소비재
선호상품	• 한국, 일본, 유럽産 고가 브랜드	• 중국, 태국, 인도 등 신흥 공업국 저가 상품
결정기준	• 품질,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 판매가격

- 선진국에 밀리고 중국에 쫓기는 한국의 샌드위치적인 입지가 오히려 힘을 받는 상황인데, 한류 열풍으로 K-소비재에 대한 선호가 더 탄력을 받고 있음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우리 제품의 품질, 기술력, 디자인, 독창성 및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크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상위층 소비시장을 선점
  - 이전에는 브랜드가 선호되었지만 이제는 품질·비용 등 가성비를 우선시하고 있어서 ODM 생산방식을 활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
- 유망 품목으로는 화장품, 가공식품 등이 있음
  - (화장품) 저가 상품의 공급이 많은 시장이어서 가성비가 좋은 우리 제품을 ODM 방식으로 공급하여 유통업체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 추진
  - (가공식품) 도시 지역 젊은 중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하여 라면,, 조미김, 과자, 건강음료 등을 중심으로 소포장 형태로 수출 지원
    - \* 현지에서는 한류 모방 상품들이 소포장 형태로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고, 현지인들의 소식(小食) 성향을 고려한다면 소포장 형태의 제품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2. 수입 우선 품목 및 면세 품목의 틈새시장 공략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수입 라이선스 우선 발급 대상 품목으로 경기 위축 및 제재 속에서 수출의 돌파구 마련
- ※ 중국산에 비해 우리의 품질력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분야를 발굴하여 진출 확대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미얀마는 수입 라이선스의 우선 발급 대상 품목을 다음과 같이 지정했는데, 농기계는 발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수입 라이선스 우선 발급 대상 품목〉

①순위	②순위	③순위
농축산물, 비료	유류, 식용유, 식료품, 핵심 원자재	타이어, 교육 관련 제품 등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농기계·화학비료) 미얀마 정부는 농업개발은행(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재원을 중심으로 농기계 구입 대출을 확대
  - (농 기계) 토양 정리용 농기계(HS 코드 8432), 수확기·탈곡기·농산물세정·선별기(HS 코드 8433), 기타 농기계·부란·양육기(HS 코드 8436), 트레일러·기타농기계부품(HS 코드 8716) 등은 수입 라이선스 심사 없이 수출 가능
  - (화학비료) 수입 라이선스 우선 발급 품목 및 중점 투자 유치 분야로 지정하고, 해외 제품의 수입 및 생산시설 투자 유치를 장려
- (태양광) 현지 정부가 태양광 발전의 장려를 목표로 연관 품목에 대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관공서, 쇼핑몰, 일반주택의 가설도 증가
  - \* 우리는 품질 경쟁력이 주요한 연관 기자재 진출에 주력하는 전략이 유리
- (전기차 및 부품) 현지 정부의 유류(油類) 의존도 축소 노력에 따라 전기차 및 관련 기자재와 충전 인프라의 도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 특히 이미 전기차를 구매한 상류층 소비자들은 화재 발생 위험이 낮고 제품 수명이 긴 한국산 충전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중국산 충전기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음)

### 3-3. 수입 라이선스 관련 무역 규제 대응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일부 필수재를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 라이선스 발급을 제한
- ※ 수출 대금 수취 불가 또는 수입 허가 지연에 따른 애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미얀마는 일부 필수재를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 수입 라이선스 발급 제한**
  - 수입 라이선스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 거래에 따른 외화 송금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은 수입 라이선스 발급 후 선적이 완료된 거래로 한정해서 허용하기 시작했음 (2024. 7. 3.)
  - 따라서 화물이 선적되기 전에 이루어진 외화 송금에 대해서는 일체 불허하고(단, 불가피한 송금은 건별 심사 후 승인), 선적이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선적 전에 라이선스를 먼저 발급받지 못했다면 송금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수입 라이선스의 적용 범위도 확대되었고 심사 기준도 강화되었음**
  - 기존 수출 주력 품목인 생활소비재, 뷰티, 가전제품들이 모두 후순위 발급 대상으로 분류된 반면, 위안화 결제 조건으로 육로로 수입되면 라이선스 발급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산 제품의 물류 경쟁력이 높아졌음

#### □ 진출전략 및 대응방안

- **(송금 리스크 회피) 상기와 같은 현지 정책에 의해 바이어가 거쳐야 하는 송금 절차를 숙지하여 외화 결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수출 대금 미수취 애로를 사전에 방지**
  - 역외 계좌 거래 또는 위안화 결제 요구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압류 등 행정처분 리스크 대비) 수입 라이선스와 관련된 처분 규정 및 발급 지역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수출 상품 선적 전에 바이어의 라이선스 획득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자칫 화물이 압류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

〈참고〉 수입 라이선스 관련 참고사항들

□ 중앙은행의 조치(2024. 7. 3.) 전후의 외화 송금 통제방식 비교

기존 통제방식	제한 조치 이후 통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용 외화 매입만 제한</li> <li>※ 바이어가 자체 확보*한 외화는 사전 송금 가능</li> <li>* 他 수출업체의 실적(Export Earning) 구매, 시중 환전소 현금 매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화 매입 제한 + 송금 제한</li> <li>※ 수입 라이선스 선발급 및 선적 완료 조건 미준수 시 해외 송금 불가</li> </ul>

□ 단계별 송금 통제 및 통제 주체

단계	통제 방법	통제 주체
[1단계] 수입 라이선스 신청·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실상 전 품목 사전심사</li> <li>품목에 따라 반려 가능</li> <li>발급까지 3개월 이상 소요</li> </ul>	상무부
[2단계] 외화 매입(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중은행에서 환전 매입</li> <li>사설 환전소에서 고환율 현금 매입(환차손 발생)</li> </ul>	중앙은행, 외환감독위원회
[3단계] 송금 적정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 라이선스 선발급, 화물 선적 완료 조건 검토</li> <li>선금은 제한적으로 송금</li> </ul>	외환감독위원회

[4단계] 해외 송금

□ 수입 라이선스 미획득 화물(VPA)의 항만 대기에 관한 처분 기준

차량, 기계류		일반 화물	
대기 기간	과태료	대기 기간	과태료
1~20일	면제	1~30일	면제
21~30일	1/24 AV	31~40일	1/90 AV
31~40일	1/4 AV	41~50일	1/48 AV
41~50일	1/2 AV	51~60일	1/24 AV
51~60일	1 AV	61~70일	1/8 AV
61일 이상	압수	71~80일	1/4 AV
		81~90일	1 AV
		91일 이상	압수

□ 참고사항 : VPA 화물 및 현지 관행

- (정의) 'VPA(Valid for Prior Arrival)'란 수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라이선스 신청은 완료했지만 입항 시점까지 라이선스를 발급받지 못한 화물을 말함
- (현지 관행) 화물이 도착한 다음에 수입 라이선스(I/L)를 신청하면 발급이 유연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바이어들의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수입 라이선스(I/L) 신청을 지연시키자 '수출국 출발 전 수입 라이선스(I/L) 신청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화물 분류 기준


## 첨부 1

##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p>화장품</p> 	<p>선정사유</p> <p>경제 개방 이후 미(美)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관심 증가, 특히 한류로 형성된 'K-Beauty 열풍'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장 선점의 우호적 여건이 형성</p>
	<p>시장동향</p> <p>화장품 수입 규모는 2018년 92백만 달러, 2019년 123백만 달러, 2020년 172백만 달러, 2021년 66백만 달러, 2022년 기준 1억 1,086만 달러, 2023년 1억 1,155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속 성장 중</p>
	<p>경쟁동향</p> <p>소수의 현지 생산 제품 외 대부분의 브랜드가 수입을 통해 공급 중임. 시장을 주도 중인 브랜드는 한국, 태국, 일본, 중국 등의 제품이며 서구권 브랜드도 점차 인지도를 넓히고 있음. 이 중 태국 및 중국 제품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저가 시장을 공략 중이며, 한국 제품은 K-Beauty 열풍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일본 제품이 점유 중이던 프리미엄 소비시장을 빠르게 확보해 나가고 있음</p>
	<p>진출방안</p> <p>바이어들이 선호하는 OEM·ODM 생산방식에 주목해야 하며, 특히 자체 브랜드를 고품질로 생산하고자 하는 미용 클리닉을 집중 마케팅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p>
품목명 2	
<p>인스턴트 라면</p> 	<p>선정사유</p> <p>한류의 영향을 받은 젊은 중산층 소비자들의 체험 소비 욕구가 시장 성장의 긍정적 요소로 작용 중</p>
	<p>시장동향</p> <p>인스턴트 라면 시장의 규모는 2022년 기준 48백만 달러, 2023년 기준 61백만 달러로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의 경기 위축에도 수입 규모는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p>
	<p>경쟁동향</p> <p>한국을 비롯해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제품들이 경쟁 구도를 형성 중. 이 중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라면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소비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한국 브랜드를 모방한 유사 상품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려고 시도 중인 사례도 다수 관찰됨</p>
	<p>진출방안</p> <p>친한(親韓) 소비층의 체험 소비 욕구(Needs)와 중상위층 소비자들의 품질 중시 성향을 활용한 '고가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p>
품목명 3	
<p>의약품</p> 	<p>선정사유</p> <p>코로나19 확산 이후 건강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면역력 강화를 위한 비타민, 건강보충제 섭취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음. 의료기기와 함께 필수재로 분류되어 수입 라이선스 발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함</p>
	<p>시장동향</p> <p>2022년 의약품(HS 코드 3004.90)의 수입 규모는 3억 3,334만 달러, 2023년 3억 3,5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p>
	<p>경쟁동향</p> <p>의약품 공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주요 수입국은 인도, 태국, 중국, 싱가포르 등임</p>
	<p>진출방안</p> <p>전문 에이전트를 통한 유통망 발굴이 필요하고, 수출 시에는 식약청(FDA) 승인이 필요함에 유의해야 하며 심사기간은 3~6개월가량 걸림</p>

품목명 4	
<p>의료기기</p> 	<p>선정사유</p> <p>주요 수요처인 병원(국민영)의 증가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현지 정부가 규정한 '필수재'에 해당되어 수입 라이선스 발급이 他 품목 대비 수월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총 1,134개소였던 국립병원은 2021년 1,177개로 증가했고, 민간병원은 2021에만 259개소가 신설되었음</p>
	<p>시장동향</p> <p>2022년 수입 규모(HS 코드 9018)는 62백만 달러에서 2023년 57백만 달러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미얀마 시장에서 의료기기는 우선 품목에 포함됨</p>
	<p>경쟁동향</p> <p>중국(저가), 싱가포르, EU(이상 고가) 제품이 주로 유통 중</p>
	<p>진출방안</p> <p>의료기기 전문업체 또는 현지 병원 관계자와의 직접 협의를 통해 유통망을 발굴할 필요가 있고(병원 관계자의 구매결정력이 높은 편), 중소형 클리닉, 미용 클리닉과 거래할 경우 의료진 교육, 유지 보수 지원 등 사후 관리가 중요함</p>
품목명 5	
<p>전기차 충전기 및 관련 부품</p> 	<p>선정사유</p> <p>현지 정부가 2050년까지 전체 등록 차량의 14%를 전기차로 교체함을 목표로 해당 산업 육성을 추진 중. 이에 따라 관련 부품에 대한 수요 급증이 예상 * 전기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 등 연관 분야에 대한 관세 혜택 부여, 현재 전후방 산업의 총 46개 품목과 34개 서비스에 대한 상업세 면제 등 다양한 지원책이 도입됨</p>
	<p>시장동향</p> <p>네피도(Nay Pyi Taw) 전기버스, 전기택시 도입 추진, 양곤시 충전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정책들이 잇따라 도입되어 시행 중임</p>
	<p>경쟁동향</p> <p>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이 전기차, 충전 기자재 분야에서 선전 중. 단, 도입 이후 품질 및 신뢰성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저평가가 지속 증가 중임</p>
	<p>진출방안</p> <p>기술, 품질 및 신뢰성이 요구되는 고가 인프라를 중심으로 점유율 확대 추진 필요</p>
품목명 6	
<p>비료</p> 	<p>선정사유</p> <p>현지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으로 규정한 농업의 핵심 원료로, 수입 라이선스 최우선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등 현지 진출 여건이 매우 우호적임</p>
	<p>시장동향</p> <p>농업 현대화 정책 추진 이후 경지 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률이 지속 확대 중이며, 경제난과 외환 위기에에도 현지 정부의 지원 하에 수입도 꾸준히 증가 중</p>
	<p>경쟁동향</p> <p>중국(저가) 제품이 앞세우면서 약 45%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인근국 제품도 물류 경쟁력을 바탕으로 판매를 확대 중</p>
	<p>진출방안</p> <p>저가 상품에 비해 생산성이 우수한 제품, 우기가 긴 미얀마 현지 환경에 적합한 품질(토양 잔류력 우수) 등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회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태국 등 주변 국가에서 미얀마로 수출하거나, 또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미얀마 내에서 가공하고 재패키징하는 방식도 고려</p>

품목명 7	
<p>농기계</p> 	<p>선정사유</p> <p>국가 기간산업으로 장려 중인 농업의 핵심 기자재로, 농촌 현대화 계획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수요 확대가 기대 * (수요 확대 요인) 2006년까지 보급된 농기계는 파종기 11만 4,000대, 트랙터 1만 1,000대, 로타리식 소형 농기계 57만 1,000대 등으로 경지 면적 대비 부족한 상황</p>
	<p>시장동향</p> <p>현지 정부가 농가 대출 등을 통해 도입 확대를 추진하면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p>
	<p>경쟁동향</p> <p>KUBOTA(일본), DKK(미국), TZWD(일본), 대동(한국) 등 선진 브랜드들이 경쟁 구도를 형성</p>
	<p>진출방안</p> <p>농기계 전문 유통기업을 통한 진출이 유망하나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독 판매망을 구축할 수도 있음. 사용법 교육 및 유지보수 등 A/S가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p>
품목명 8	
<p>음료수</p> 	<p>선정사유</p> <p>도시 지역에 집중된 젊은 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프트 드링크(Soft Drink) 음료' 수요가 증가</p>
	<p>시장동향</p> <p>2022년의 음료 소비량은 4억 2,060만 리터를 기록하며 무려 13.5%의 반등을 기록. 국가비상사태 이후 소비 위축에서 가장 빨리 회복한 품목 중 하나로 꼽힘</p>
	<p>경쟁동향</p> <p>물류 및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태국 브랜드가 9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한국 제품은 브랜드 이미지와 차별화된 맛을 바탕으로 시장을 공략 중</p>
	<p>진출방안</p> <p>현지 음료 소비 트렌드(에너지 드링크 중심, 맛·색소 중시 등)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필요</p>
품목명 9	
<p>전선</p> 	<p>선정사유</p> <p>2030년까지 매년 11% 이상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 기자재 소비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현지 정부의 인프라 개선사업이 시장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p>
	<p>시장동향</p> <p>전선(HS Code 8544) 기준 수입 규모는 2021년 2억 7,100만 달러, 2022년 1억 9,100만 달러, 2023년 1억 4,300만 달러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미얀마의 전력 인프라 확충에 전선은 계속 수입 필요 제품임</p>
	<p>경쟁동향</p> <p>양곤(Yangon), 만달레이(Mandalay)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약 30개 전문기업이 전선을 유통 중이며, 제품 대부분은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서 수입 중</p>
	<p>진출방안</p> <p>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력 기자재 개선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전력이 필요. 또한 현지 생산을 통한 공급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p>

품목명 10	
<p>바닥재</p> 	<p>선정사유</p> <p>서구식 생활양식의 유입으로 인테리어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바닥재 수요가 형성, 이후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p>
	<p>시장동향</p> <p>PVC바닥재 수입 규모는 2021년에 18백만 달러, 2022년에 34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경제 위기에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2023년에는 23백만 달러로 다시 감소세</p>
	<p>경쟁동향</p> <p>경제 위기 이후 저가 상품들이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확대 중이며, 주요 수출국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임. 한국 제품은 소규모로 형성된 고급 인테리어 시장을 제한적으로 점유 중이며, Gerflor(프랑스), Tarkett(유럽), Armstrong(미국) 등 선진 브랜드와 경쟁구도를 형성</p>
	<p>진출방안</p> <p>품질경쟁력 활용이 가능한 고급주택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유통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바닥재 인테리어에 한국 드라마가 미친 영향이 큰 편이므로 한류 소비층 겨냥 전략도 주효할 것으로 예상</p>

품목명 1		
콘텐츠(웹툰)	선정사유	중산층 증가, 인터넷 인프라 확대와 디지털화로 스마트폰 사용률이 증가하며 웹툰 콘텐츠 수요 형성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웹툰의 인기가 급상승 중)
	시장동향	현지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 중인 '페이스북'을 활용해 한국 웹툰을 접하고 있으며, 번역 수요도 높은 편임
	경쟁동향	현재 정식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Wattpad, Wunzin 등 번역 플랫폼이 공급을 전담
	진출방안	현지 수요를 반영, 번역 공급이 가능한 정규 플랫폼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정식 론칭할 필요가 있음
품목명 2		
온라인 플랫폼	선정사유	인터넷 사용 확대,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현지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을 거듭 중
	시장동향	2021년 이커머스 거래 규모는 240억 9,900만 짜트(Kyat)로 2010년 (18억 7,800만 짜트) 대비 무려 1,182% 증가하는 등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 중
	경쟁동향	중국 알리바바의 투자를 받은 'Shop.com'이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 중이며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강자인 CityMart도 Citymall을 론칭하며 경쟁구도를 형성 중
	진출방안	플랫폼 사업 진출 외 플랫폼 활용 소비재 진출전략도 주요할 것으로 예상. 특히 뷰티 상품, 가공식품 등 트렌드에 민감하고 다품종 전략이 중시되는 품목은 e-Commerce를 통한 유통의 장점이 클 것으로 판단
품목명 3		
의료 서비스	선정사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중상위층 소비자들은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찾고 있어 향후 수요 확대가 기대됨
	시장동향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정부 지출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8.5%가량 증가. 특히 2017년 해당 분야 정부 지출은 7억 4,100만 달러로 전체 예산의 6%를 차지하는 등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 중
	경쟁동향	태국,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및 일본 등이 연락사무소 또는 합작 병원 설립을 통해 현지에 진출하며 ArYu International 병원, Grand Hanthar 병원 등 국제기준에 근접한 시설이 설립됨
	진출방안	차별화된 선진 의료 서비스를 바탕으로 중상위층 수요를 공략, 특히 현지 합작 진출 형태가 주요함

품목명 4		
소액 금융	선정사유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경제난 심화 이후 저소득층 인구가 증가하며 소액 금융 수요가 확대
	시장동향	한국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안마에는 15개의 소액 금융이 진출해 있음
	경쟁동향	일본, 한국 등 글로벌 자본의 현지 시장 진출이 활발하며, 현재 총 대출자산 2조 3,160억 짜트 규모의 176개 업체가 현지에서 영업 중
	진출방안	현지 투자 진출 법령을 상세히 확인하여 합작 및 단독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층 주민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만큼 ESG 요소의 관리도 중요
품목명 5		
배달 서비스	선정사유	인터넷 사용 확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대면 서비스 발달로 배달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함
	시장동향	도시 지역 젊은 층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서비스 이용객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됨
	경쟁동향	해외 자본투자로 'Food Panda'와 'Grab Food' 등의 서비스가 잇따라 론칭하여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고, 서비스 지역은 현재까지 양곤, 만달레이 등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진출방안	현지 소비자 니즈 파악을 위한 합작 투자가 유망한데, 신용카드 결제, 환불 시스템 정비 등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도 주효할 수 있음

### 첨부 3

## '25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연번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1	한류 활용 소비재 수출 지원	• 미얀마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 사업	연중/양곤
2		• 미얀마 온라인 화장품 ODM 파트너링 사업	연중/온라인
3		• 미얀마 화장품 맞춤형 지원 사업(지사화, 조사)	연중/양곤
4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운영 사업	• 상반기 진출 기업 간담회	상반기/양곤
5		• 하반기 진출 기업 간담회	하반기/양곤
6		• 무역투자 뉴스레터 발간 (온라인)	연중/온라인
7		• 현장정보 웨비나 (온라인)	연중/온라인
8	미얀마 취업 지원	• 해외 취업 멘토링 간담회	3분기/양곤
9	수출중단기업 지원	• 상시 사이버 미팅 (온라인)	연중/온라인

## 첨부 4

##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International Education Fair Myanmar	2025. 1. 18~19	-
World Education Expo Myanmar	2025. 6. 28~29	-
Myanmar Plas Print Pack 2024	2025. 12. 16~19	-
Myanmar International Textile & Garment Industry Exhibition 2024	2025. 12. 16~19	-

###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용덕	관장	양곤 무역관	+95-1-925-3346	lewis@kotra.or.kr
2	Kay Thwe Oo	사원	양곤 무역관	+95-1-925-3346	kaythwe@kotra.or.kr

# 2025 미얀마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